

業界 솔식

디지털 인버터 国產化 成功

□ 金星計電(株) □

산업용 전기·전자 메이커인 金星計電이 전기에
너지 절약 및 공장자동화의 핵심이 되는 디지털식
범용 인버터를 독자적으로 개발하는 데 성공했다.

인버터는 電動機의 負荷에 따라 속도를 조절함으
로써 40~50%의 절전, 전동기의 수명연장, 보수경
비의 극소화 등을 이를 수 있는 에너지 절약 기기
이다.

이번에 개발된 인버터는 7 機種으로서 0.5HP에
서 10HP까지의 전동기에 적용될 수 있다고 한다.

同 인버터의 특징은 16비트 마이크로 프로세서를
채용하여 속도 제어능력이 탁월하고 미리 프로그
램된 運転 스키줄에 따라 자동으로 운전시킬 수 있
으며 최대 15 Pattern까지 기억이 가능하다.

또한 전원이 차단되어도 사용자가 프로그램한 내
용은 계속 기억되며, 종래에 사용하던 아날로그식
의 인버터에서 사용되던 아날로그 속도 조정 신호
도 받을 수 있게 하여 기존 인버터 응용 분야에도
사용될 수 있다고 한다.



593개 電子部品 国產化

□ (株) 金星社 □

金星社가 올해중 이미 593개 전자부품을 국산화,
450억원의 수입대체와 130억원 상당의 원가절감 효
과를 올렸다.

수입부품의 개발이 이처럼 호조를 보이자 올해
개발목표를 1,000개로 늘려 잡고 연말안으로 900억
원의 수입대체와 400억원 상당의 원가를 줄일 계획
이다.

同社는 지난 3 월 부품국산화 상담실을 설치, 모
든 부품업체에 국산화에의 참여 문호를 개방했으며
전국 지역별 공장단위로 부품국산화추진위원회, 외
주지원실 등 전담부서를 두고 그 동안 19차례의 국
산화 추진설명회를 열어왔다.

오실로스코프 국산화

□ 金星精密(株) □

金星精密은 모든 물리적 현상을 전압의 크기로
바꿔 화면에 파형으로 그려주는 오실로스코프를 개
발, 実用化에 성공하고 본격적인 생산에 착수했다.

同社가 개발한 이 오실로스코프는 20MHz에서
100MHz급의 4 개 기종이다.

이 측정장치는 관측하려는 신호가 시간에 따라
변화하는 과정을 조사하는 데 사용되며 파형관측,
레이더 등 전파에 의한 거리측정, 초음파에 의한
탐상기, 트랜지스터의 특정곡선표시 등이 가능하다.

현재 국내시장 규모는 연간 약 200만弗로 추정되
며 지금까지 주로 수입에 의존해 왔으나 同社가 오
실로스코프를 국내에서 개발함에 따라 이에 대한
수입대체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멀티유저 페스컴 개발

□ (株) 三寶컴퓨터 □

三寶컴퓨터는 2명 이상의 사용자가 동시에 운용할 수 있는 트라이谮 AT 멀티스테이션·레이저 프린터 등 4종의 신제품을 개발했다.

트라이谮 AT 멀티스테이션은 제닉스OS(컴퓨터 운영체제)를 채택, 최대 11명까지 동시 사용이 가능하며 정보처리 속도가 빠르고 확장성이 뛰어난 것이 특징이다.

트라이谮 레이저 프린터와 한글·한자보드의 경우는 글자체가 다양하고 그래픽기능과 빠른 인쇄기능 등을 갖고 있다.

또한 同社가 科技院과 공동으로 개발한 CAI 시스템은 8비트 퍼스컴을 이용해 각 교과과정의 학습을 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이미 서울 시내 일부 학교에 공급, 활용중이다.

칩형 트랜지스터 개발

□ 三星半導体通信(株) □

三星半導体通信은 기존 트랜지스터 제품에 비해 크기가 6분의 1, 부피가 20분의 1로 각각 작아진 칩형 트랜지스터를 개발, 응용제품의 소형·경량화에 크게 기여할 수 있게 됐다.

SOT23 패키지라고 불리는 이 새로운 형의 소형 트랜지스터는 제품의 회로기밀보장·잡음감소 등 높은 신뢰성을 필요로 하는 혼성IC에 주로 이용된다.

同社는 이 SOT23제품을 부천공장에서 양산하기 시작했는데 향후 5년간 이 SOT 패키지 제품을 포함한 트랜지스터를 2억 5,000만弗이상 수출할 계획이다.

메모리 보드 개발

□ (株) 祥雲 □

祥雲은 IBM5550 퍼스컴의 기억용량을 확장할 수 있는 메모리 보드와 1메가바이트 램 디스크 어댑터를 개발했다.

5550MEB로 불리는 메모리 보드는 IBM 5550의 시스템 기억용량을 한장의 보드로 확장할 수 있는 것으로 사용자가 대형 프로그램을 운용하거나 다양한 데이터를 처리할 때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또한 5550RD라고 불리는 1메가바이트 디스크

어답터는 IBM5550에 부착해 실제 디스크 드라이브와 동일하게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디스크 드라이브보다 20배 이상 처리속도가 빠르고 특수문자, 한자 등을 추가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테이프 生産設備 수출

□ 새한미디어(株) □

새한미디어는 南美 브라질에 비디오 카세트 테이프 조립공장을 수출하게 됐다.

同社는 브라질 VAT社에 300만弗 상당의 비디오 카세트 테이프 조립 플랜트를 비롯 각종 기계설비를 포함 연간 800만Fr 상당의 비디오 테이프 소재 및 각종부품을 공급하기로 했다.

특히 同社는 테이프 단일 품목으로 올해 수출목표인 2억 5,000만Fr을 무난히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번 플랜트 수출로 앞으로 남미지역에 자사 생산제품의 안정적인 수출은 물론 각종 기술제품 수출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모터 制御 배전반 개발

□ 新栄電機(株) □

新栄電機가 개발한 전자화 모터 콘트롤 센터는 각종 모터의 제어와 보호기능을 한곳에 모은 配電盤인데 이 배전반은 신호전송장치를 채택했기 때문에 4가닥의 전선만으로 최고 64대의 모터를 제어할 수 있어 종전보다 제어배선수를 대폭 줄일 수 있게 되었다.

종전에 모터 1대를 제어하는 데는 8가닥 이상의 전선이 필요해 공사비는 물론 케이블 비용, 보조릴레이 비용 등이 추가로 들었으나 전자화 모터 콘트롤 센터는 제어배선 4가닥만으로 최대 64대까지의 모터를 제어·보호·감시할 수 있는 것이다.

또한 이같은 배선과 부대시설의 감소화로 공사기간의 단축과 케이블 공사비를 종전보다 10분의 1까지 절감할 수 있다.

콘덴서 素材 필름 국산화

□ 銀星産業(株) □

銀星產業은 그 동안 전량 輸入에 의존해 온 콘덴서 소재 메탈라이즈 폴리에스터 필름(M. PET필름)을 국산화했다.

M. PET필름 생산공정은 원단(PET필름)을 들여와 금속 증착을 시켜 가공하는 것으로 지난 80년이후 기존 MP(메탈라이즈 폐이파)가 사양화되면서 각광을 받게 된 新素材이다.

한편 同社는 M. PET 필름 국산화에 이어 한단계 높은 M. PP(메탈라이즈 폴리프로필렌 필름) 개발을 거의 마무리지어 오는 연말부터 본격 생산할 계획이며 다음 단계 素材인 M. PC(메탈라이즈 폴리카보나이트 필름)개발에着手했다.

音響테이프 事業 본격 진출

□ (株) 코오롱 □

화섬업체인 코오롱이 오디오 테이프, 비디오 테이프, 플로피 디스크 등 전자부문에 본격 진출한다.

이미 오디오 및 비디오 테이프의 원자재인 폴리에스터 필름을 생산해 온 코오롱은 구미공장안에 자성처리설비를 갖추고 테이프와 플로피 디스크의 생산에 들어갔다.

이로써 오디오 테이프 생산회사는 鮮京마그네틱, 새한미디어, 金星마그네테크, 썬전자 등을 포함해 5社로 늘었으며 비디오 테이프의 경우 鮮京화학, 새한미디어, 金星마그네테크, 코오롱이 4파전을 벌이게 됐다.

住所 및 變更事項 案内

□ 동양전원공업(주) (서울사무소)

- 변경일 : 1986년 6월 7일
- 변경후 주소 : 서울 강남구 방배동 925-6
(미광빌딩 401호)
- 변경후 전화번호 : 586-1610/2, 586-0188

□ (주) 상 미

- 변경일 : 1986년 7월 1일

- 변경후 상호 : (주) 상 미

- 변경전 상호 : (주)금속센터

- 변경후 대표자 : 임 원배

- 변경전 대표자 : 정 훈보

□ (株) 韓國理研

- 변경일 : 1986년 7월 11일

- 변경후 상호 : (株) 韓國理研

- 변경전 상호 : 韓國理研眞空工業(株)

□ (주) 해동씨스템

- 변경일 : 1986년 7월 19일

- 변경후 주소 : 서울 마포구 동교동 200-4

- (동서식품빌딩 3층)

- 변경후 전화번호 : 333-2116/7, 3281, 7804

□ 우주컴퓨터(주)

- 변경일 : 1986년 7월 25일

- 변경후 대표자 : 俞 恪 穗

- 변경전 대표자 : 韓 根 培

□ 同和音響產業(株)

- 변경일 : 1986년 8월 10일

- 변경후 전화번호 : 785-3335/40

- 변경전 전화번호 : 783-3335/9

□ 한국컴퓨터기술

- 변경일 : 1986년 8월 13일

- 변경후 주소 : 서울 마포구 도화동 51-1
(성우빌딩 1401호)

- 변경후 전화번호 : 719-8651/5

□ 금성마이크로닉스(주)

- 변경일 : 1986년 7월 16일

- 변경후 대표자 : 文 正 煥

- 변경전 대표자 : 朴 嘲 成